

ISSUE BRIEFING

2020. 07. 01

Vol. 226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박정민_부연구위원 전북학연구센터

권이선_전문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CONTENTS

-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 2. 칠광도와 무성서원 3
- 3. 국가문화재 등록과 활용 8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7월은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 1주년

- 2019년 7월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목록에 등재¹⁾
 -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을 세워 서원의 국제적 위상 강화하기로 함²⁾
- 2020년은 등재 1주년으로 각 서원에서 기념 행사 기획
 - 전북의 무성서원은 7월 10일(금)에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로 “KBS 국악한마당” 실시
 -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는 7월 8일(수)에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무성서원 역사문화자원화 방안 연구”, “무성서원원지” 번역 등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의 콘텐츠를 강화
 - 국립전주박물관은 6월 30일 ~ 8월 30일까지 기획전시

◎ 무성서원만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동인 마련 필요

- 2012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9개 서원 가운데 무성서원의 자료가 가장 적음
 - 하지만 무성서원의 경우 관리 소홀과 무관심 등으로 자료가 없어졌을 가능성 높음
 - 예를 들어, 『무성서원원지』상(1930)의 <지산처사장서기(芝山處士藏書記)>에 안재호가 남학당 종건과 무성서원의 강습례를 보고 집안에서 소장하던 서책 수백 권을 무성서원에 기증하였다는 기록 있음. 이를 통해 무성서원에도 최하 수백 권의 책이 있었을 가능성 높음

〈표 1〉 각 서원별 소장 자료 현황³⁾

서원명	소수	도산	병산	옥산	도동	남계	필암	무성	돈암
소장자료 합계	6,256	10,747	5,004	6,256	127+	1,241	929	57	1,941

• 2019년 기준으로 9개 서원 가운데 중하위권

- 소수·병산·도산 서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남계 ≫ 도동 > 무성 > 옥산 > 돈암 > 필암서원 순
- 방문객이 많은 경북의 서원들 중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과 천원 지폐의 배경, 병산서원은 수려한 풍경이라는 장점이 있어 다른 6개 서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방문객의 수요가 있음

〈표 2〉 2019년 9대 서원의 관람객 현황⁴⁾

서원명	소수	도산	병산	옥산	도동	남계	필암	무성	돈암
관람객수	343,445	315,844	322,342	16,417	37,000	76,938	10,867	22,751	14,535

1) 문화재청 보도자료,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19년 7월 6일.
 2)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기념식 개최», 2019년 9월 5일.
 3)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9~10쪽.
 4)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https://www.tour.go.kr>) 참조 및 문화재청 확인(2020년 6월 17일)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 무성서원은 보유한 역사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 등재
 - 최치원을 대표로 하는 역사성으로 우리나라 유학의 정통성 확립
 - 대원군의 서원 철폐에 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이후 전라도 서원의 도원(道院) 역할 수행
 - 1906년 최익현 등의 병오창의로 대표되는 구국(救國)의 성지
 - 우리나라 최초의 태인향약으로 대표되는 지역민과 호흡
- 자료의 부족을 전환할 수 있는 콘텐츠 확립이 필요
 - 석지 채용신이 1910년에 그린 칠광도는 세밀하게 당대의 무성서원 일대를 표현하여 현재 남아 있는 무성서원과 주변 역사문화 자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이를 이미지화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음
 -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의 유입 요소 중 하나로 삼아 대표 자원으로 홍보할 필요

2. 칠광도와 무성서원

◎ 어진화사(御眞畫師)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

- 채용신(1850년~1941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가문의 세거지가 전북이고 1900년대 이후 대부분을 전주, 익산, 태인 등 전북 지역에서 보낸 인물
- 인물화 등에 강점을 보인 어진화가로 영조어진(보물 930호), 황현초상(보물 1494호), 최익현 초상(보물 1510호) 등이 유명
- 1910년에는 정읍의 태인 지역에 거주하며 김직술·임병찬·김영상 등의 초상을 그리고, 송정십현도와 칠광도 등을 그렸음
- 1941년에 삶을 마감하였고, 전북 익산군 왕궁면 장암리 채씨 선산에 묘소 있음
- 채용신은 인물화에 강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산수·화조·영모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도 역량 발휘. 대표적인 것이 정읍 태인 송산사에 보관중인 칠광도와 송정십현도

◎ 칠광도

- 칠광도는 1910년에 전북 정읍군 칠보면에 거주하는 김직술의 집에 머물면서 무성서원 일대에 남겨진 칠광(七狂)의 고사를 그린 그림으로서 비단 위에 채색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83.4cm, 세로 127.7cm
- “칠광”이란 1613년에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위에 반발하여 무성서원이 있는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일대에 은거한 7명(김대립, 김응윤, 김감, 송치중, 송민고, 이상형, 이탁)을 의미하며

칠광 중 한 명인 송민고가 그린 그림을 토대로 채용신이 1910년에 다시 그린 것

- 채용신은 세밀하게 무성서원 일대의 경관을 표현하였고, 송정에 모인 칠광의 모습을 그림
- 성황산 아래 무성서원이 위치한 현재의 원촌마을이 있고, 가운데에는 동편·남전마을, 하단에는 송산마을이 위치. 이는 현재도 같은 양상. 이외 후송정, 송정, 영당, 후송정, 무성서원, 석불입상, 유상대, 동각, 연시각, 남천사, 태산사 등이 그려져 있음
- 칠광도가 그려진 지역은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태산선비 문화권으로 관련 보물과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향토 문화재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
- 문화재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정·필양사·용계서원은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고, 관련 역사문화 자원인 영당과 후송정, 송산사, 시산사, 감운정, 유상대, 정극인 묘 등까지 포함하면 가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역사 문화자원 밀집



〈그림 1〉 칠광도 전경, 정읍시립박물관 제공

〈표 3〉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시산리의 문화재⁵⁾

구분		수량	명칭
유형문화재	보물	2	김희련 개국원종공신녹권·김희련 고신왕지(칠보면 시산리), 고현동 향약(칠보면 남전길)
기념물	사적	1	무성서원(칠보면 무성리)
국가지정문화재 소계		3	
시도유형문화재		3	무성리석불입상(칠보면 무성리), 무성리삼층석탑(칠보면 무성리), 도강김씨 훈도공파 종중 고문서(칠보면 무성리)
시도민속문화재		1	남근석(칠보면 백암리)
도지정문화재 소계		4	
문화재 자료		2	송정(칠보면 무성리), 남천사(칠보면 시산리)
합계		9	

◎ 칠광도에 표현된 무성서원

- 칠광도에 표현된 무성서원은 뒤에서부터 태산사, 내삼문, 강당, 비각, 현가루, 홍문이 일자로 서있고, 오른쪽으로 협문, 강수재 등이 있어 현재의 모습과 거의 유사

5)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유산검색(<http://www.heritage.go.kr>). 검색일 2020년 6월 3일.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 칠광도 자체가 북동쪽으로 50도 가량 기울어져 있어 무성서원의 실제 배치도와 다른 점을 감안하고 비교하면 <그림 2>, <그림 3>과 같음
- <그림 2>, <그림 3>과 같이 1910년 당시의 건물배치와 현재의 건물 배치가 거의 유사하며 특히, 태산사, 내삼문, 강당, 현가루, 우측의 강수재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음
- 「무성서원원지」(1930)을 중심으로 대조하면 칠광도의 무성서원은 1910년 당시의 그림이라는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남

- 태산사(賢宇) : 1483년에 현재 위치로 이격한 이후, 1735년, 1755년, 1762년, 1838년에 중수
- 내삼문(神門) :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1773년, 1880년, 1884년에 중수
- 강당 : 시원을 알 수 없지만 1737년, 1780년에 중수하였고, 1825년의 화재로 1828년에 중창한 뒤, 1924년에 중수
- 비각 : 1849년에 '서호순 현감 불망비'를 세운 이후 1871년에 비각 건립



<그림 2> 무성서원 부분



<그림 3> 무성서원 배치도⁶⁾

- 강수재 : 1707년 이후에 강수재가 건립되어 운영되었고, 현재의 형태는 1879년에 다시 창건
- 협문(中門) :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1789년에 중수하고 1837년에 강당의 기와를 바꾸며 함께 수리(修葺)
- 홍살문(紅門) :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1745년과 1837년에 중수
- 현가루 : 1891년에 창건
- 「무성서원원지」를 보면 1910년 당시에 태산사, 내삼문, 강당, 현가루, 강수재, 협문, 홍살문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칠광도의 무성서원도 역시 일치함
- 칠광도 뒤편에 10여 채의 초가집이 보이지만, 현재는 없음. 1915년의 지적도를 보면 실제 이곳에 10여 채의 '집터(垆)'가 있는 것으로 기재. 이러한 사실은 칠광도에 표현된 무성서원 일대가 매우 정확하게 구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

6)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0, 124쪽.

◎ 칠광도에 표현된 주요 문화유산⁷⁾

• 칠광도에 표현된 주요문화유산은 현재에도 대부분 찾을 수 있고, 당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

- 후송정(後松亭) : 1899년에 완공하였고, 뒤쪽 바위에 후송정 42畝碑(1917년), 정자 옆 암벽에는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後松'이라고 쓴 암각서 등이 있음. 칠광도의 후송정 앞에 물길은 현재와 다르지만, 1915년의 지적도 등을 봤을 때 당대의 상황을 반영
- 송정(松亭)과 영당 : 송정은 1764년에 건립한 뒤, 1868년에 중건. 영당도 1899년에 건립
- 무성리 석불입상 : 고려시대 불상으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에 지정. 석불입상의 실제 위치는 칠광도의 위치와 동일



〈그림 4〉 후송정



〈그림 5〉 송정과 영당



〈그림 6〉 유상대



〈그림 7〉 태산사



〈그림 8〉 동각(우)과 연시각(좌)



〈그림 9〉 남천사



〈그림 10〉 호호정유허비



〈그림 11〉 석불입상

- 유상대(流觴臺) : 동진(東晉)의 왕희지(王羲之)가 절강성(浙江省) 소흥현(小興縣)의 난정(蘭亭)에 있던 유상곡수(流觴曲水)의 연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최치원이 이곳에서 태수로 재직할 때 만들었다고 함. 유상대는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면 술잔이 떠다니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상대는 경주의 포석정. 현재 유상대의 모습이 남지 않고, 1919년에 세운 감운정이 있음
- 동각(洞閣) : 고현동 향약을 논의하고 기록하는 장소. 1475년(성종 6)에 정극인이 “고현향약”을 결성. 이는 관권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자치향약으로 이황과 이이의 향약보다 90여 년 앞선 한국 최초의 향약.⁸⁾ 이러한 역사성을 인정받아 1993년에 보물 제1181호로 지정
- 연시각(延諫閣) : 정음시 칠보면 일대의 입향조인 김희련이 1871년(고종 8)에 ‘총민’의 시호를 추증 받은 것을 기념하여 만든 제각. 김희련은 1395년(태조 4)에 조선 건국에 기여한 공으로 개국원종공신에 책봉되었고, 이때의 녹권과 왕지가 각각 보물 제437호와 보물 제438호로 지정

7) 칠광도에 나타난 무성리원과 주변 경관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한국사연구』 189, 2020)

8) 이강오, 「泰仁 古縣鄉約에 대한 小考」, 『향토사연구』 4, 1992, 13~14쪽.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 남천사(藍川祠) : 1676년(숙종 2)에 창건하여 김후진과 안의, 손홍록, 김만정 등을 배향한 곳. 안의와 손홍록은 임진왜란 당시 경기전과 전주사고에 보관된 태조어진과 조선왕조실록을 내장산 용암굴로 옮겨 병화로부터 지킨 중요 인물.⁹⁾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남천사도 훼철되었고, 이후 유림들이 ‘단(壇)’을 세운 모습이 잘 드러남
- 태산사(泰山祠) : 면암 최익현을 모시는 사우로 1907년 5월에 태인 유림들이 발의하여 현재 칠보초등학교 자리에 세움. 하지만 일제에 의해 헐리고 1970년에 시산사를 세울 때 김직술과 김기술을 추가 배향

◎ 칠광도의 가치

• 9개 서원 가운데 전근대 그림 자료 전승 현황

- 4개 서원의 그림 자료가 있으며 그 중 필암서원과 남계서원은 서원지에 건물의 배치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산수화 형태로는 도산서원과 무성서원 2개밖에 없음

〈표 4〉 9개 서원의 전근대 주요 그림 자료 전승 현황

서원명	작품명	비고
도산서원	도산서원도(陶山書院圖)	1751년 강세황 작품, 보물 제522호
	계상정거(溪上靜居) : 퇴우이선생 진적첩 중	1746년 정선 작품, 보물 제585호의 일부. 천원 신권 배경
무성서원	칠광도(七狂圖)	1910년 채용신 작품
남계서원	남계서원도(藍溪書院圖)	『남계서원지』
필암서원	서원전도(書院全圖)	『필암서원지』

- 도산서원 관련 그림은 보물로 지정되었거나, 천원 지폐에 배경 그림으로 있어 친숙도 높음
- 칠광도 역시 무성서원이 그려져 있고, 채색화일뿐만 아니라 채용신이 거주하면서 그렸기 때문에 당대의 모습 구현



〈그림 12〉 도산서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¹⁰⁾



〈그림 13〉 계상정거도(천원 지폐)

- 칠광도는 충분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이를 보물로 지정하여 무성서원에 대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용하여 관광객 유입의 방안으로 제고할 수 있음

9) 덕분에 조선 전기의 역사를 현재까지 알 수 있고,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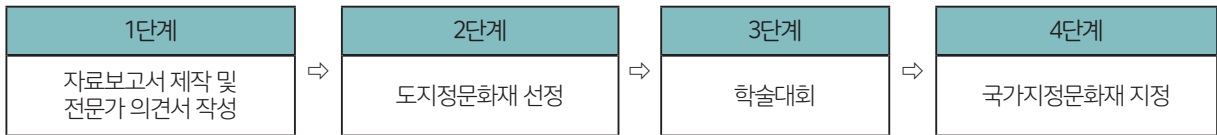
10)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site/main/relic/search/view?relicId=2033#>) 검색일 2020년 6월 2일.

3. 국가문화재 등록과 활용

◎ 문화재 지정 절차 필요

• 칠광도의 문화재 지정 필요

- 문화재청은 목조·석조건축물, 전적류, 회화, 조각,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 칠광도는 회화로 여러 면에서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부합함



- 먼저, 칠광도가 가지는 회화적 의미, 역사성 등을 밝히기 위해 정읍시는 전문가들을 모아 학술대회를 개최해야 함
- 학술대회 이후 내용의 보완 및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도지정 문화재로 신청
- 도지정문화재로 선정된 이후 추가 보존과 정비 활용계획, 문화재에 대한 학술·고증 자료 등이 포함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 보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지정

• 문화재 지정의 세부 절차

단계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1단계	문화재 지정신청 (시군 → 도)	문화재 지정신청 (해당지자체 →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회 → 문화재청)
2단계	현지조사 의뢰 (도 → 조사자)	현지조사 의뢰 (문화재청 → 조사자)
	현지조사 실시 (문화재 위원 등)	현지조사 실시 (문화재 위원 등)
	조사보고서 제출 (조사자 → 도)	조사보고서 제출 (조사자 → 문화재청)
3단계	문화재위원회 지정 검토(예고) 심의	문화재위원회 지정 검토(예고) 심의
	지정 예고	지정 예고
4단계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도)	지정고시 (문화재청)
5단계	지정서 교부 (도)	해당시도에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문화재청)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 도지정 문화재 지정 절차

-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정읍시는 문화재지정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도는 서류 검토
- 도는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기타 관계전문가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한 후, 이들은 현지 방문 후 조사·검토하여 문화재 현황 및 지정 가치, 보호·관리사항 및 종합의견을 도에 제출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결 한 후 문화재 지정 가치로 인정된 경우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
-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및 예고결과를 참조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고시 한 뒤, 도보에 고시

• 보물 지정 절차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소장자가 정읍시장의 의견서를 넣고, 전라북도 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회의기록을 도에서 문화재청으로 제출. 문화재청은 신청서류 검토
- 문화재청은 해당분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등 전문가 3명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한 후, 이들은 현지 방문 후 조사·검토하여 문화재 현황 및 지정 가치, 보호·관리사항 및 종합의견을 포괄한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결 한 후 문화재 지정 가치로 인정된 경우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
-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정고시 한 뒤, 관보에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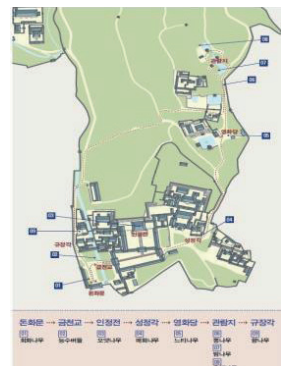
◎ 활용 및 홍보

• 칠광도를 통한 무성서원 일대 답사 프로그램 진행

- 칠광도에 그려진 문화유산을 찾아 해설사와 함께 무성서원 일대를 탐방
- 관련 장소에 갈 때마다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인증 절차 마련
- 향후 무성서원의 서원·향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 추진 가능
- 칠광도를 제작한 이후에 주변의 문화유산까지 포함한다면 칠광도와 이를 현대식으로 표현한 지도로 약 20개가 넘는 문화유산을 담을 수 있으며 여기에 관련 스토리텔링 등을 부가하여 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관람객들의 체류 시간 확대 가능

<사례 1> 살아 숨쉬는 4대 궁·종묘 만들기 사업 :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 답사¹¹⁾

- 동궐도에 그려진 건축물과 나무를 찾아 해설사와 함께 창덕궁과 후원 곳곳을 탐방
- 동궐도 속 그림과 수백 년 동안 궁궐을 지켜온 현재의 나무 모습을 대조하며 나무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음
- ‘역사가 숨 쉬는 궁궐, 문화가 펼쳐지는 궁궐’ 7개 과제, 44개 세부사업의 일환
- 행사 내용
 - ▶ 행사 기간에는 왕실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 내 정자(영화당, 존덕정, 취규정)에 시, 수필 등의 도서 비치
 - ▶ 답사프로그램은 회차별로 차별화된 해설을 진행
 - ▶ 창덕궁의 특정 공간 속 나무에 얽힌 조선 왕실과 역사 이야기는 창덕궁 전문 해설



(그림 14) 창덕궁 나무답사 동선

11) <사례 1>과 <사례 2>, <그림 14>, <그림 15>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 홈페이지의 동궐도 사진 및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답사 운영 안내’ 참고.(<http://www.cdg.go.kr>) 2020년 5월 26일 검색.

• 당대의 원형 보전과 활용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필요

- 1900년대 초의 무성서원 일대를 밝혀 다른 8개 서원과 달리 원형을 복원하고 보전할 수 있는 강점 확보
- 원형확보를 통해 주변의 동진강, 은석천, 칠보천 등의 생태 하천 정비 사업 및 마을 가꾸기 사업,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는 근거 마련
- 향후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전북생생마을'과 협력하여 농촌관광 통합마케팅, 마을상품 공동마케팅, 정책통합 추진체계 마련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활용하기 위해 종합 정비 계획 필요

• 칠광도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지도 및 문화상품 개발

- 칠광도 속 그림과 관련 문화유산의 모습을 대조하여 해당 지역 및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 개발
- 향후 원촌마을과 동편·남전마을 등의 정비사업에서 활용 가능
- 칠광도의 뛰어난 회화성과 상징성 등을 통해 달력이나 족자 등으로 활용
- 손수건이나 스카프, 정음 혹은 무성서원을 상징하는 책자 등의 표지안으로 이용
-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고지도 디지털 지도서비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지리정보서비스', 국토지리원의 '인문지리정보 서비스' 등과 협업하여 칠광도의 우수성 홍보

<사례 2> 동궐도로 창덕궁 관람하기 프로그램

- 동궐도(국보 제249호)는 동궐의 전경을 16첩 병풍에 그린 그림
- 200년 전 그림인 동궐도와 현재의 장소를 <그림 15>와 같이 비정하고, 오늘날의 창경궁·창덕궁과 비교하면서 답사하는 프로그램 운영



<그림 15>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 세계문화유산 등재 2주년, 3주년에 맞추어 도지정문화재와 보물 지정 추진

- 무성서원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효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2주년에 전라북도 문화재로 하고, 3주년에 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절 필요
- 도지정문화재와 보물지정을 통해 무성서원에 대한 지속적 관심 제고

• 칠광도와 관련된 칠광과 십현, 무성서원의 배향인물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마련

- 무성서원의 배향 인물들인 최치원, 신잠, 정극인, 송세림, 정언충, 김약목, 김관 등의 공통점은 관직에 나가 입신양명을 택하지 않고, 은인자중(隱忍自重) 하며 지냈던 인물들
- 광해군대의 칠광(七狂)과 십현(十賢) 역시 복인 정권에 나가지 않고, 지역에 머물며 지조를 지킨 인물들
-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은인자중하며 살기 좋은 곳이라는 장소적 상징성과 스토리를 만들어 콘텐츠를 확장할 필요 있음

• 관련 연구 및 후속 자료의 문화재 등재 추진

- 칠광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 및 회화사적 위상 등에 대한 연구 진행으로 가치 재조명

110년 전 무성서원을 품은 칠광도, 보물 지정을 위한 도약

- 현재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추가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주변 관광시설 및 콘텐츠 강화
- 송산사에 칠광도와 함께 보관된 송정십현도, 송정수계지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일괄로 도지정문화재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

• 홍보 효과 제고

- 향후 정읍시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기획전시하고, 칠광도에 대한 치밀함, 역사성 등 홍보
-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를 겸하여 도민에게 칠광도의 우수성 홍보
- 향후 전북학 도민강좌, 정읍학 시민강좌 등과 연계한 대중 강좌로 무성서원과 칠광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

<참고문헌>

주요관광지점 입장객통계(<https://www.tour.g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http://www.cdg.go.kr/>)

문화재청 보도자료,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19년 7월 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문화재청,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기념식 개최, 2019년 9월 5일.

이강오, 「泰仁 古縣鄉約에 대한 小考」, 「향토사연구」 4, 1992

문화재청, 「서원의 보존관리 매뉴얼」, 문화재청, 2010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한국서원학보」 2, 2013

박정민, 「1900년대 초 태인 고현내의 경관」, 「한국사연구」 189, 2020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20. 07. 01 Vol. 226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각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